

# 강진 토종벌 명품화사업 추진

### 대구면에 집중 육성...양봉 농가 진입 제한 밀원수 식재...벌통·벌떡이 등 기자재 지원

강진군이 토종벌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최근 '남충봉아부패병' 등으로 피해를 입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토종벌 산업을 적극 육성해 소중한 토종 자원을 보전함은 물론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각종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양봉과 경합관계로 피해를 입

고 있는 토종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양봉의 침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구면 계율리, 용운리를 중심으로 토종벌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는 양봉농가가 진입하지 않도록 주요 길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토종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진달래·아카시아·떡갈나무 등 밀원수(蜜源樹) 식재 가능지역을 파악해 밀원수를 식재하고 벌꿀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토종벌 사육 기술 보급 등을 추진해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토종벌산업의 확대 보급을 위해 현재 벌통·벌떡이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종벌 종보전 육종 사업을 추진해 생산되는 토종벌을 오는 9월까지 계율리, 용운리 지역에 분입입하지 않도록 주요 길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토종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토종벌 50여군을 사육하면서 토종벌의 보전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구면 용운리 김광수(42)씨는 "현 밀원수(蜜源樹) 식재 가능지역을 파악해 밀원수를 식재하고 벌꿀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토종벌 사육 기술 보급 등을 추진해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토종벌산업의 확대 보급을 위해 현재 벌통·벌떡이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종벌 종보전 육종 사업을 추진해 생산되는 토종벌을 오는 9월까지 계율리, 용운리 지역에 분입입하지 않도록 주요 길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토종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토종벌 50여군을 사육하면서 토종벌의 보전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친구 손잡고...재미있는 운동회 최근 장성 월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청군·백군으로 나눠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는 운동회를 갖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장성에 사과 테마공원

### 2014년까지 60억 들여 삼서면 유평리 조성

오는 2014년 장성지역에 사과를 테마로 한 농·어촌 테마공원(조감도)이 조성된다. 장성군은 "농·어촌 뉴타운이 들어서는 삼서면 유평리 지내에 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군비 30억원)을 투입, 사과를 테마로 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조감도·관광·휴식공간을 겸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사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장성 드림빌'에 입주하는 귀농 도시민의 정착지원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군은 장성사과 특화를 위해 사과 영농체결공원 조성과 '기적의 사과' 영농교육을 통해 사과 상품성 상승의 기회로 활용돼 장성사과를 장기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새얼굴

### “직거래 판매 확대 농가 소득 증대”

#### 김성순 강진 남부농협 조합장



“자립경영 기반을 다지고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 농협도 살고 조합원도 사는 1등 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성순(72) 강진 남부농협 조합장은 “갈수록 고령화로 접어드는 농촌 현실에 맞게 신농사업보다는 경제사업에 역점을 두고 농협을 운영하겠다”며 “현재 공동목장에서 벼 우량묘와 배추 우량묘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적 계획은 새책소개 재배 및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 칠량면 출신인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지역 우수학생 발굴 일환으로 조합원 자녀 대학생 97명을 대상으로 각각 30만원씩 총 2910만 원을 지급했으며, 조합원 복지에 적극적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정에(67)씨와 사이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담양 대나무축제 300억 경제효과

### 죽녹원·관방제림 등 국내외 관광객 49만명 다녀가

담양 대나무축제가 300억원대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림, 죽향 문화체험마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국내외 관광객 49만 명이 방문하고, 32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이번 축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 수종으로 떠오르며 웰빙과 관광산업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대나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전 축제에서는 다른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공연 프로그램

과 감히 폐지하고, '대나무의 고을 담양'을 구체화 시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소쿠리 물고기 잡기, 비빔 대나무 떡볶이, 대나무 곤충 만들기, 대나무 악기와 그림 그리기, 대나무 활쏘기 등은 대나무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판나무 디자인 패션쇼,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담양역사 문화골든벨, 방과후 뽀내기 페스티벌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

족 전통혼례식 등 다문화 가정의 축제 참여를 강화해 운영해 축제의 '소통과 통합의 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12개 읍·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연한 '죽물시장 가는 길'은 담양 주민은 물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종합 체육관에서 열린 '2012 대나무 박람회'는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품과 건강식품, 미용제품, 인테리어 및 건축 신소재, 의약품, 의류 등 대나무 신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2015년에 개최되는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 전북

## 아파트 거래·전셋값 안정세

### 월별 주택 매매가 상승률 둔화...전세공급률 높아져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공급 부족으로 오르기만 하던 전북 지역 아파트 거래·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금융위기 이후 민간 주택 건설업체의 사업참여 중단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부터 공급이 늘면서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공급은 지난해 1만1000가구가, 올해는 8246가구가 착공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공동주택 50개 단지에 2만5414가구가 준공·입주할 예정이어서 상승폭이 둔화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쉬

워지게 됐다. 전북지역의 월별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2%, 11월 1.4%, 12월 0.8%에서 올 1월은 0.7%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분기 전세공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전분기 85.8%에 비해 30.7% 감소해 전세공급 부족이 완화됐다. 전북도 서민주택과 조성규 담당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사과 꽃 따기' 체험행사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 사과단지에서 사과나무를 분양받은 300여명의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사과 꽃 따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연합뉴스

## 전통시장 살린 '온누리상품권'

### 도내 유통매액 107억...시장 물품 구매로 이어져 상가 매출 증

전북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1~4월까지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파악한 결과 107억원이 판매됐으며 이중 104.1%인 111억원이 전통시장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된 상품권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누리 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 2종류로 전북은행·새마을금고·중소기업은행·우체국에서 구입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토록 했다. 또 공무원 복지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기업체 등을 방문해 상품권 이용 구매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기관·단체·기업체의 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100만원 이상 구입 시 3%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갈색날개매미충' 확산...과수 농가 주의에 확산 발생되고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복숭아 나무를 비롯해 매실·감나무·복분자·블루베리·뽕나무 등에 발생한다. 특히 줄기와 잎, 과실을 흡즙하고 약충 및 성충은 분비물을 분비해 그늘을 유발시켜 광합성을 저해해 농산물의 상품성과 수량을 떨어뜨린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단신

### 전주 한옥마을 토요일마다 명창공연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매주 토요일 최고의 명창들의 맛깔스러운 공연을 볼 수 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 한옥마을에서 최고의 명창을 초청해 흥겨운 잔치를 벌인다. 공연작품은 판소리 춘향가 중

'변화도 생일잔치 및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재구성한 '해 같은 마패를 달 같이 들어 메고'만당 창극으로 70분짜리이다. 출연진은 안숙선 명창을 비롯해 김명자, 조영자, 이난주 등 명창들이다. 문의(063-283-0223)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왕호떡' 김민영 대표 초청 강자

군산시는 10일 오후 3시 시청 새만금 아카데미홀에서 왕호떡 김민영 대표를 초청, '12억의 맛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제2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김 대표의 인생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오는 슬럼프를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

들고, 행복할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 대표는 주시적으로 12억원을 날린 뒤 직장까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 1평짜리 가게에서 국내의 140개 가맹점을 둔 성공을 거뒀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김제문화회관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오는 6월 1일 김제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국립 예술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국립예

술단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주회는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네마 콘서트 중심으로 구성돼 모처럼 지역주민들에게 교향악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 순창군 농기계 무상 임대사업 큰 호응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순창군이 '농기계 무상 임대사업'을 추진,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논두렁 조성기·육묘 파종기·동력 분무기·과종기 등 52기종에 336대를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센터로 전화(063-650-5141) 또는 직접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남원경찰, 치안서비스 유공자에 감사장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는 7일 '뉴겨버넌스'(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감사장을 받은 주민 양모(53)씨는 지난해 말 남원시 산동면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비어있는 가게나 집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변모(15·무직)군 등 2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원경찰청은 양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단시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여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방춘원 서장은 "경찰과 관계



기관, 모든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등 뉴겨버넌스적 치안활동을 펼칠 때 비로소 치안정책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